

광주시장, 현직 재선 출마에 국회의원·구청장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선거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힘이 쏠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 정비와 출마 후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사실상 제1야당인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도 관심사다.

18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강기정 현 시장의 재선 출마에 전·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강 시장의 경쟁자로는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광산읍)과 문인 복구청장이 유력하다. 여기에 이병훈 전 의원과 이형석 전 의원의 도전 구도를 관망하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강 시장은 국회의원 3선(17~19대)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호남총괄보좌관 등 이력이 화려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현역인 이용성 시장을 꺾고 공천장을 받아낸 뒤 광주시장에 입성했다.

민선 8기 동안 인공지능(AI) 산업을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안착시켰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공약까지 받아내

대선 후 더불어민주당 여론 쏠림 현상

강기정 시장, AI 등 성적표로 재선 출마

민형배·문인·이병훈·이형석 등 출마 채비

국민의힘·조국혁신당 등 야당 '정치 열세'

힘을 얻고 있다.

2018년 광주시장 경선에서 강 시장과 맞붙은 경험이 있는 민형배 의원이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원조 '천명(천이재명)'에 국회의원 재선인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5선·전남도지사·총리·당 대표·대권 주자'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침몰시키는 저력을 보였다. 언론인 출신인 민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근무 경험과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역임했다.

재선인 문인 복구청장도 체급을 올려 광주시장 출마가 유력하다. 기술 관료에서 광주시 행정부시장, 기초단체장까지 두루 섭렵한 문 정장은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 자치구 최초 6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 대통령상 7회, 국무총리상 10회 등 738회에 걸친 수상 실적이 문 정장의 행정력을 대변한다.

문 정장은 지난해 말 탄핵정국에서도 이재명 당 대표와 코드를 맞춰 SNS와 플래카드 등으로 내란세력 척결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병훈·이형석 전 국회의원도 정치 흐름을 관망하며 광주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병훈 전 의원은 광양군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이형석 전 의원은 광주시의회 의장, 대통령실 비서관, 민주당 최고위원,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 경선의 변수는 공천 방식이다. 8월 전당대회 후 새로운 당 대표 체제에서 공천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투표율과 득표율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지역 경선은 민의를 애국할 수 있어 권리당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후보군. 왼쪽부터 강기정 시장, 문인 복구청장, 민형배 국회의원, 이병훈·이형석 전 국회의원. /뉴스시스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아 있어 새정부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중간평가 민심이 형성될지 여부가 정치 판세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은 국민의힘은 불모지 광주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광주시장 후보를 공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김정현 광주시장위원장이 신이라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주 정치권에서 제1야당인 조국혁신당의 공천 여부도 또 다른 관심사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민주당을 앞섰는데 올해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따돌리고 최초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이나 민주당 독점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 등 다양한 정치 상황에



광주시장 후보군. 왼쪽부터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장위원장,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위원장, 강은미 민주노동당 광주시장위원장. /뉴스시스

따라 조국혁신당이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당에서는 김주업 광주시장위원장이, 민주노동당에서는 강은미 광주시장위원장이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주업 위원장은 "진보당 상황으로 보

면 당선 목적보다는 출마로 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위원장은 "아직 광주시장 후보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고, 당 내 경선을 해야 하겠지만 출마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전남지사, 김영록 3선 도전에 중진 의원들 도전

내년 6·3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전남 행정의 수장을 뽑는 '도백(道伯) 선거판'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이자 텃밭인 광주·전남에선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오랜 공식에 일찌감치 치열한 집안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록 현 지사의 '폴타임 3선' 도전에 맞서 3~4선 중진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는 형국이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지사출마 후보로는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김 지사를 비롯해 지역 중진 의원과 야당 지역위원장 등 6~8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우선 김 지사는 최초로 소위 '폴타임 3선'에 도전한다. 민선7기 전남지사에 당선된 후 지난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완도 출신인 김 지사는 제2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강진, 완도에서 관선 군수를 지냈다. 이후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제18대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지역구에 당선돼 정치에 발을 내

김 지사, 도정 성과 앞세워 첫 '폴타임 3선' 노려

이개호·신정훈·서삼석·주철현 의원 거센 도전장

조국당 출전 '촉각', 국힘은 김화진 위원장 출마

디뎠다.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김 지사는 안정적 도정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반 마련을 통한 전남 미래먹거리 토대 구축, 국고예산 9조원 시대 개막,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 등의 굵직한 성과를 냈다.

앞서 박준영 전 지사가 3선에 성공했지만 '폴타임'은 아니다. 34대(2004년 6월~2006년 6월), 35대(2006년 7월~2010년 6월), 36대(2006년 7월~2010년 6월)로 유일 3선이지만 33대 고(故) 박태영 전 지사가 임기 중 사망하면서 보궐선거로 입성해 사실상 '2.5선'인 셈이다.

김 지사가 '3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선이라는 큰 산은 넘어야 한다. 당내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

우선 4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3선 신정훈(나주·화순), 3선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재선 주철현(여수·갑)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4회 행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한 이개호 의원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후 지난 2014년 19대 총선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 지사의 뒤를 이어 농림부 장관을 맡기도 했다.

이 의원은 "차분히 잘 준비해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그동안은 대선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8월까지 정책개발에 힘쓰고 이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김 지사와 맞붙은 바 있는 신정훈 의원도 권도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서삼석의원, 신정훈의원, 이개호의원, 주철현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뉴스시스

중대를 노리고 있다. 신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내각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현재로서는 도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지역 발전에 방향성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지방정치에 대한 소신과 전남발전을 위한 실질적 비전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동부권 주자"를 내세우며 출마 채비로 분주하다.

주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요구를 고려해 도지사 출마를 자연스럽게 고민 중"이라며 "전남 동부권의 소외의식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출마를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아직 새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말하기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현재 출마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말까지는 가부간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 없지만 올해 말쯤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대항마로 부상한 조국혁신당도 어떤 식으로든 링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올 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김승남 광주도지사공사 사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남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 구례사랑상품권
-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기업

하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